

관광·항공·호텔 분야 취업 정보 ‘한눈에’

오늘 김대중센터서 ‘광주 관광 일자리 페스타’ 개막 특강·현장 채용 상담…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도

광주관광공사는 지역 관광 일자리 활성화와 청년 인제 발굴을 위해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025 광주 관광 일자리 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페스타는 관광·엔터테인먼트·호텔·항공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특강과 현장 채용 상담 등이 선보인다.

‘관광 커리어 멘토링 특강’에서는 국내 대표 관광 콘텐츠 플랫폼 ‘여행에 미치다’ 크리에이터가 직무 노하우를 전하고, 전 에미레이트항공(EK) 객실승무원이 글로벌 항공 서비스 직무와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채용·직무 상담 부스에는 광주관광공

사, 라마다플라자호텔, 솔비치진도, 디오선리조트 등 43개 관광·호텔·서비스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취업 정보와 실질적인 채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광주 청년을 채용할 시 기업에 1개월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 직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유력 항공사 현직 승무원, 외항사 승무원, 국내 철도 승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직무 상담존을 운영한다.

항공 서비스 및 객실승무원 직무에 관

심 있는 구직자들은 실제 현직자의 조언과 지원 팀을 들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또한 청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진로·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퍼스널컬러 진단, 면접 메이크업 컨설팅, 직업 타로카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등록 이벤트와 현장 스탬프투어도 운영된다.

사전 신청자는 자동으로 이벤트 응모 대상이 되며 현장 추첨을 통해 총 100명

에게 ‘청자다방 5000원권’이 제공된다.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 정보를 얻고, 이미지 컨설팅과 현장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사전등록 혜택과 스탬프 투어 등 참여형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사전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jvMRuJsMKVSTb5gt7>) 또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공식 SNS 계정 프로필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호남통계청, 통계발전토론회 광주·전주시 우수 지자체 선정

호남지방통계청이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호남통계청은 20일 광주 동구 라마다충정호텔에서 2025년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지자체 통계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통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통계청은 지역통계 활용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광주시와 전주시가 지역통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정책활동 최우수 사례로는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동별 중점관리군 및 의무방문 대상 선정’과 광주 동구의 ‘인구통계로 분석하고, 지수로 완성하는 맞춤형 치매 안심마을’ 사례가 뽑혔다.

정구현 청장은 “지난 10월 1일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면서 통계행정이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며 “호남통계청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지역 데이터 거버넌스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중진공 전남연수원, 광양서 ‘첫 삽’

국비 334억 투입…2027년 11월 준공 예정

중소기업 교육 허브가 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연수원 건립공사가 착수됐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연수원에 대한 부지정지 작업에 들어가면서 건립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총 사업비 334억원(전액 국비)을 들여 광양시 태인동 명당3지구 일원 3만3000㎡ 부지에 건립되는 전남연수원은 지상 6층 건물로 연수시설, 기술사, 컨벤션홀, 체육시설 등 복합형 교육시설을 갖추게 되며 오는 2027년 11월 준공된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연수원 유지를 위해 부지 무상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 등 여러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연수원이 준공되면 철강·석유화학·이

차전지 등 광양만권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 특화교육, AI·스마트제조(AI)·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인력 양성을 하게 된다. 연간 전문교육을 이수할 인원은 3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교육시설 외에 컨벤션홀, 콘도형 기술사, 주차장 등 일부 편의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게 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인화 시장은 “전남연수원 착공은 중소기업 혁신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AI·스마트제조·탄소중립 등 미래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지원을 강화해 지역산업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권지 기자 kkjin@gwangnam.co.kr



최근 (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전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역창업특화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창업특화지원 호남권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GICON, ‘창업특화지원 성과공유회’ 성황

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우수기업 혁신 성과 점검

(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전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역창업특화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창업특화지원 호남권 성과공유회’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호남권 1인 창조기업과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통해 육성된 우수 기업들의 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자 간 협력과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의 실적 향상을 위한 센터별 추진 성과가 공유됐으며, 총 86명의 창업 기업인, 운영 인력, 지방청 및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호남 창업 생태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다.

창업 기업의 성과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우수 기업과 전남 인력에 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3점, 창업진흥원장상 2점, 광주·전남·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9점, 지자체장상 5점 등 총 19점의 표창이 전달됐다. 이는 호남권

창업자들이 한 해 동안 기울인 혁신적 노력을 공식적으로 격려하는 자리였다.

특히 중기부장관상과 창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우수 기업 5개사는 직접 성과사례를 발표하며, 창업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실질적인 노하우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후발 창업 기업들에게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이수안 대표(카페인마케팅)가 강사로 나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뉴 미디어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주제로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심화 마케팅 교육을 진행했다. 투자 유치,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마케팅 전략, 세무회계, 법률,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도 1대 1 멘토링 형식으로 집중 제공돼, 기업들의 실제 사업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

이경주 원장은 “이번 행사가 호남권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송출 기자 photo25@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최근 AI집적단지 컨퍼런스홀에서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테크(TECH)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 AI 집적단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주목

AI사업단, 모빌리티 산·학·연 협력의 장 ‘테크 세미나’

현대차·자동차연구원 등 참여… 광주 기업 30% 할인

광주 첨단 3지구 국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 집적단지) 내에 구축된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테스트 베드로 부각되면서 산·학·연의 관심을 끌었다.

20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전남 AI집적단지 컨퍼런스홀에서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테크(TECH)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가상환경 기반 주행 검증 및 자율주행 시스템 통합 기술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의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자율주행차 및 교통안전 분야의 핵심 기술 실증 플랫폼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스

트(GIST) 등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이노시물레이션 변덕수 상무의 ‘실 가상 통합 검증과 AI 대응’, 국립과학사건연구원 김중혁 실장의 ‘법과학적 사고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활용 방안’, 공주대학교 김문식 교수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시스템 통합 검증 기술’ 등 최신 모빌리티 기술 등이 소개됐다.

발표 이후에는 AI 기반 주행 시뮬레이션 시연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DIL·VIL)를 직접 체험하며 실제로 도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경험했다.

AI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운전자가 직접 탑승해 가상 환경에서 주

행 테스트를 수행하는 ‘DILS(Driver in the Loop Simulator)’, 실제 차량을 활용한 ‘VILS(Vehicle in the Loop Simulator)’,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SILS(Software in the Loop Simulator)’ 등 3종 장비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 확보, 자율주행 성능 검증, 시나리오 기반 안전성 평가 등 종합적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장비는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이 기술 실증·검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광주 지역 내 기업은 사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필수다”면서 “AI 집적단지의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송출 기자 photo25@

광주경총, G-HR 미래인재포럼 성료

조선대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모색…특강 진행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G-HR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및 실무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광주경총과 조선대학교의 산학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도 1대 1 멘토링 형식으로 집중 제공돼, 기업들의 실제 사업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

이경주 원장은 “이번 행사가 호남권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송출 기자 photo25@

적 일자리 정보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갈 구상이다.

이날 특강은 강경운 김연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주요 판결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 및 주요 특징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절차 및 대응 요령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 고용노동청 관계자가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강연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경총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안전관리 트렌드가 더 이상 단순한 비용이나니라는 것”이라며 “최근 ESG 경영평가와 금융기관 심사서 안전관리 역량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광주경총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은 “경영자가 먼저 움직여야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은 지역 기업들이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학연계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편, 지역특화프로젝트 간담회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권, 전남권을 구분해 각각 25일과 28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